

# 第59回 發明教室

1月 14日, 成功事例 등 發表

- … 本會는 지난 1月 14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59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. ………○
- …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시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…○
- …하여 盛況을 이루었다.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새 생각회 姜信默 회장과 송학產…○
- …業 黃鶴泳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「工業所有權制度」에…○
- …대한 강의가 있었다. ……………○
- … 두 發明人的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. ……………○

## 시내 테이블 發明人

송학產業 黃鶴泳 사장

비리리움·테라리움·수족관·콜렉손 진열 등 개성과 취향에 따라 레스토랑·가정·사무실 등에서 축소된 自然의 운치를 그대로 연출하여 생활의 멋과 공간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「시내(川) 테이블」을 發明한 송학產業 黃鶴泳 사장.

黃사장은 '88全國優秀發明品 展示會의 出品을 契機로 企業化에 나서 짹짹한 재미를 보고 있다.

또 한 사람의 發明企業人이 誕生한 것이다.

黃사장이 시내 테이블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지난 85년.

유리사업을 하면서 자주 드나들던 유리도·소매점 또는 유리 공예점 등에서 유리와 실리콘으로 만든 장식용 수족관과 테라리움 유리관을 보고 장

식을 겸한 테이블을 발명하기로 결심했다.

“사업을 그만 두었을때 주위의 만류는 대단했지요.”

그러나 開發費 投資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研究에 몰두한 결과 完製品을 生産할 수 있게 되었다는 黃사장의 설명.

黃사장은 上廣下狹 용기를 테이블 상단에 부착하여 하단은 일반 테이블과 같이 사용하고, 상단 용기는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테이블을 만들었다.

이 시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까지 研究費만도 5천만원이나 소요되었다.

또 試作品만도 5회나 손수 만들어 보기도 했다.

“일반 테이블과 똑같이 식탁·응접탁자·회의용 테이블·인포메이션 데스크 등으로 사



〈黃鶴泳 사장〉

용하면서도 별도의 공간없이 테이블 자체가 수족관·테라리움관·코렉손진열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도에 따라 규격을 자유자재로 생산할 수도 있지요.”

黃사장은 테이블은 가정이나 직장 어느 곳이나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므로 소비의 대상도 무한정이라며 希望에 차 있다.

黃사장의 연락처는 전화 서울 554-1256. <☎>